

# 광주·전남 교육예산 누락 후폭풍 촉각 곤두

### 광주 내년 유치원 방과후 과정 학부모들이 비용 부담할 판 전남 고화질 CCTV 설치 전액 삭감...학생 안전 소홀 지적

내년도 광주·전남 교육 예산안에 대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라는 시·도 교육청 입장에 불구, 관련 예산 누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유치원·학부모·학교 측 반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왜 광주만 삭감 하나=광주 교육청은 예산 삭감·누락으로 인해 반발 기류가 가장 거셀 곳으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사업비를 깎고 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1조7015억)에 저소득층을 제외한 유치원생들의 방과후 교육사업비(108억)를 편성하지 않은 데 따른 항의성 전화만 민원 요청 등이 광주시교육청에 잇따르고 있다. 이대로라면 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 내년부턴 자녀의 방과 후 과정 프로그램비를 부담해야 한다.

유치원 등 관련업계는 희망자 모두에게 지원했던 전년도와 달리, 저소득층 아이들의 방과후 과정 사업비(54억)만 지원키로 한 방침이 맞는지 확인하는 한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남은 지원하는데, 왜 광주만 먼저 삭감한 것이나”, “갑자기(사업비) 지원을 중단하면 유치원 운영을 어떻게 하란 말이나”는 유치원 업계의 항의성 민원이 대부분이지만 예산이 확정되면 반발이 학부모들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교육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동철 국회의원은 최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유치원연합회와 광주시교육청 담당자를 불러 의견을 수렴하는가 하면, 시의회의도 관련 예산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있다.

◇초등학생 늘어날텐데, 보고만 있을텐

가=광주시 동구 학강초교 재배치사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학강초등학교의 경우 학동 재개발아파트(1282세대)의 입주가 이뤄지는 2017년 1월에 맞춘 시설 개선이 절실하지만 정부의 중앙 투·융자 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면서 여태껏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교실 증축 등의 시설 개선이 애초 계획과 달리 더디게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공나물 교실’ 등으로 피해를 볼 우려도 교육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초등학교 안전 문제, 언제까지 방치할텐가=전남도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 안전 예산 누락 여부도 교육계에서 논란이 거세질 조짐이다.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안전을 위해 진행키로 했던 100만 화소 이상 CCTV 설치사업(47억)을 전액 삭감해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한 예산 편성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학생들 안전 문제를 소홀하게 다룬 것 아니냐는 우

려와 맞물려 도의회 예산 심의에서 ‘우선 순위’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국립 초·중학교, 조리원 인건비 삭감=국립 초·중학교의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조리원 인건비 지원 중단 방침도 논란이다.

교육청은 내년부터 국립인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와 전대사대부중에 대한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대사대부중의 조리원 인건비는 1억 2000여만원, 광주교대 부설초교는 1억 5000여만원 등으로 학교급식법(8조)에 따라 ‘급식운영비는 학교 설립·운영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다만, 무상급식 식품비는 ‘보조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그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부터 원칙과 달리 지원해오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누리과정 문제로 인한 정부와의 예산 신경전으로 빚어진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학교와 학부모측의 반발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 “특고압선 지중화 약속 지켜라”

### 아파트 건설조합 지상화 추진에 광주 각화동 주민들 반발

광주시 북구 각화동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한 아파트 건설조합이 지중화로 건설하기로 한 송전탑(특고압선)을 허가도 없이 지상화하기로 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북구청은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불법을 확인하고 지난 8월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각화동 송전탑 이설 결사반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최근 ‘특고압선 지상화 이설 반대 호소문’을 통해 “각화동 모 주택조합은 아파트 신축부지 내 특고압 선로를 지중화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9월 주택 승인을 받았지만 착공 5개월 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받지 않고 특고압선 지상 설치 공사를 불법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제 집 마당에 있는 특고압선을 제 집 뒷마당에 이웃집 마당으로 옮기거나 옮기는 것과 같다”며 “조합의 불법 지상화 공사 강행으로 막대한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익과 편익을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조합은 지난해 9월 특고압선을 지중화하는 조건으로 건축승인을 받고, 북구 문충동 옛 광주교도소 부지를 매입한 뒤 해당 부지에 지중화 송전탑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광주시가 민주·인권·평화센터 조성사업과 중복된다며 ‘불가 방침’을 밝히자 제2순환도로 인근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뒤 지상화를 강행했다.

조합이 지상화하려던 송전탑은 모두 7개로 각각 높이는 33.3m, 무게는 13t에 이른다.

북구 관계자는 “주택조합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행위 인허가 절차를 거쳤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 지난 8월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다음달 26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특고압선을 지상화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부지에 특고압 철탑을 설치해 부지를 영구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주택조합의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수은 유출 파문 빛은 남영전구 대표 고발

### 광주시·영산강환경청

광주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영전구 대표 김모(60)씨를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는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일시간간단명령 등을 내린 49명 외에 하청업체 근로자 등 32명을 추적, 이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32명은 남영전구가 광주광장 수은형광등 생산설비를 철거한 뒤 도장·전기설비 작업에 참여한 하청업체 근로자와 철거설비를 운반한 물류회사 관계자들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수은 형광등 제조설비 철거 작업자에게 수은 존재를 알리지 않아 산재 사고를 낸 책임 등을 물어 남영전구 대표 김씨를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했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남영전구 사업장 화단 등 토양과 지하수에 잔류한 수은 약 30ℓ(400kg)와 오염토양 85.6㎡(200ℓ 드럼용기 428개)를 수거했다. 수은이 발견되거나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곳은 남영전구 내 콘크리트 노상 2곳, 화단 5곳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 형광등 제조설비 철거 과정에서 수은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은 유출 사고가 난 남영전구 사업장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오염된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업체 측 관리감독도 이어가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자전거로 즐기는 ‘아트투어 남행열차’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개관(11월 25일)을 앞두고 광주시와 코레일 광주본부가 21~22일 서울~장성간 자전거 전용열차인 ‘아트투어 남행열차’를 운행했다. 이 행사에 참가한 자전거 동호인 200여명은 첫날 백양사에서 광주역까지 78km를, 이틀날 아시아문화전당, 광주천, 송정역까지 40km 구간을 자전거로 이동하며 아시아문화전당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검찰,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 불복 항고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여·38)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22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따르면 법원이 검찰 수사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김씨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할 것에 대해 검찰이 지난 20일 항고했다.

사유가 안 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항고에 따라 광주고법에서 다시 재심 개시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은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결국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에서 재심이 결정되면 이 때부터 김씨 사건의 진실규명 재판은 다시 이뤄지게 된다. 수차례의 심리를 거친 뒤 1심 선고와 그에 따른 항소, 상고까지 앞으로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전남대, ‘얼차려 물의’ 음악학과 감사 착수

전남대가 선·후배 간 군대식 ‘얼차려’ 문제가 불거진 예술대학 음악학과에 대한 특정 감사에 착수했다. 예술대학측은 대학본부 의견을 반영, 예정됐던 정기연주회도 취소하는 등 파문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22일 전남대에 따르면 예술대학은 최근 학생 명의의 공고문을 내고 정규 수업 이외 허가되지 않은 모든 학생 자치 활동을 금지키로 했다. 예술대학측은 특히 대학본부 내 학생 생활상담센터측의 ‘선·후배가 함께 참여하는 정기연주회에 대한 우려’ 의견이 제기되면서 예정됐던 정기 연주회도 취소했다. 생활상담센터는 학생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본부측은 이와 별개로 지난 20일부터 특별 감사에 착수, 얼차려 문화에 대한 진상 조사를 거쳐 종합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와 군대식 MT 문화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고 대학측은 사실 조사를 거쳐 일부 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 관계자는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취지로 감사반을 구성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 무좀 얼마나 심했길래...진료 불만 50대 병원서 흉기 위협

○...지독한 무좀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50대 남성이 진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을 찾아가 의사와 환자를 흉기로 위협했다가 경찰서 행. ○...22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7)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20분께 광주시 동구 한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의사 A(37)씨와 환자 B(73)씨를 흉기로 위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유)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인가등록 (등록번호 15-16-15)** 된 업체로서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 NPL 질권대출, NPL매입, 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무**

(유)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원	2014타경 30504	주택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0736	상가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5타경 1428	공장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6914	임야
전주지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9078	사무실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수원지원	2015타경 9386	근린시설
장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서울동부지원	2015타경 3901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3062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179	아파트
전주지원	2015타경 3629	공장	의정부지원	2013타경 16018	임야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광주지원	2015타경 375	의료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목포지원	2013타경 7272	근린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 유한회사 수호 중개법인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

등록번호 200114-0058676 / 200114-0062461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근저당권 채권,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경매경락잔금대출지원담당 이 사 010-2170-3034